

※ 모스크바 시대 300년의 문학과 사회

I. 14~15세기 모스크바 공국 시기의 문학과 사회: 영성(святость)의 회복과 믿음을 위한 문학

; 타타르의 지배와 대비되는 자신들 러시아인들의 정체성 확립과 보존을 위해서라도 러시아 정교라는 종교성을 강조. 이와 맞물려 1380년 쿨리코보 벌판에서의 타타르에 대한 승리를 칭송하기 위해 승리를 예언, 축성한 성인들에 대한 칭송으로부터 시작해 그 외 여러 다른 성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성자전으로 남김. 또한 조금씩 세력을 되찾아가는 모스크바 공국의 반영으로 외부 세계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지리적 확대에 나서는 모습 또한 투영. 그리고, 쿨리코보 벌판의 승리를 과거 키예프 루시 시대 초원의 유목민들과의 접전을 그린 『이고리 원정기』의 리바이벌을 시도한 『자돈시치나』 등이 있다.

모스크바 대공국 예비기;

- 이반 1세(칼리타, 1328~1340),
- 드미트리 돈스코이(Дмитрий Донской; 1350~1389)와 쿨리코보 벌판 전투(Куликовская битва; 1380)
- 바실리 1, 2세, 그리고
- 이반 3세(1462~1505); 타타르 지배 종식(1480)

『자돈시치나(Задонщина)』
 『라도네주의 세르게이 성자전』,
 현자 예피파니의 생애전,
 『페름의 스테판 성자전』,
 아파나시 니키티의 『세 바다 너머로의 여행』(인도 무역여행)

cf) 모스크바가 처음부터 ‘자연스럽게’ 세력의 중심이 된 것이 아니라, 노브고로드(Новгород), 트베리(Тверь), 프스코프(Псков), 랴잔(Рязань), 무롬(Муром), 블라디미르(Владимир) 등 주변 공국들과의 때로는 상당한 유혈 경쟁 끝에 모스크바가 승리를 거두며 통합의 중심으로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했다. 이라고 난 뒤에는, 모스크바가 자신들의 권위를 다른 도시에 확인시키고자 수직적 위계관계에서의 복종을 끊임없이 요구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결국 모스크바가 중심에 서게 되었다.

II. 16세기 모스크바 대공국 시대의 문학과 사회: ‘외부와의 수평적 연결’

; 공국 내부의 정치적 정비와 외부로의 정복과 팽창이 동시에 일어난 모스크바 대공국의 전성기, 정치적 중앙집권화 & 사회/종교적 ‘공식화’라는 외부과제와 연결되는 문학(social vertical bond).

모스크바 대공국 전성기;

- 바실리 3세(1479~1505-1533)
- 이반 4세(1533~1547-1584)
- 표도르 1세(1584~1598)와 보리스 고두노프의 섭정(1598~1605) / 여기까지로 사실상 16세기 모스크바 대공국의 종료.

그리스인 막심(1475~1556); “제2차 남슬라브 영향”
 대주교 마카리(1482~1563),
 『흰 두건 이야기』,
 『도모스트로이(Домострой)』, 16세기 전반
 『표트르와 페브로니아에 관한 이야기』

르카잔 왕국의 역사노 16세기 후반
르미반 뇌제의 안드레이 쿠릅스키에 대한 서
신노 1564
르미네이 체티(Великие минеи-четыи)노
1552
르향실 계보(Степенная книга)노 1560~63
르채색 연대기(Лицевой летописный свод)노
1568~1576

이후, 17세기를 이끄는 이른바 동란의 시기(Смутное время: 1598~1613)가 도래